

少陰人 病理論에 관한 考察

황민우 · 고병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사상체질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on the Pathology of Soeumi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Hwang Min-Woo, Koh Byungh-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city, Kyung-nam, Korea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1.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proposed to find out the pathology of Soeumi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2. Methods

The related contents of the pathology of Soeumin were selected in Je-Ma Lee's literatures such as 『Dongmu-YuGo(東武遺稿)』(DYG), 『Donguisusebowon-SaSang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DSS), 『Donguisusebowon-GabObon(東醫壽世保元甲午本)』(DGO), 『Donguisusebowon-ShinChukbon(東醫壽世保元辛丑本)』(DSC), and the research was written in order to find out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Soeumin in SCM.

3. Results and Conclusions

The chronological change of pathologic concept in Soeumin diseases as follows : Pathology in Soeumin diseases was much Cold Qi(寒氣), and more descending Qi, less ascending Qi in DYG, DSS. In 「Discourse on the viscera and bowels」 of DGO and DSC, Soeumin has a circulation of Water-Food Hot Qi of Spleen Group(脾黨) and Water-Food Cold Qi of Kidney Group(腎黨). Exterior Disease(表病) was the injury of Exterior-Qi such as eye-shoulder Qi(目膂氣) by Pleasure-Nature-Qi(樂性氣), and Interior Disease(裏病) was the injury of Interior-Qi such as spleen-stomach Qi(脾胃氣) by Joy-Emotion-Qi(喜情氣).

All diseases of Soeumin are caused by insufficient Warm Yang Qi(陽煖之氣) in Spleen Group(脾黨), so the pathology of Soeumin was focused on Requisite energy(保命之主) and each small viscera and bowels(偏小之臟). In this viewpoint, the schema of Soeumin diseases such as Ullkwang-syndrome(鬱狂證), Mangyang-syndrome(亡陽證), Taeum-syndrome(太陰證) and Soeum-syndrome(少陰證) were designed to explain the mechanism of each syndrome.

Key Words : Soeumin, Soeumin disease, SCM patholog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 접수일 2009년 06월 22일; 심사일 2009년 07월 04일;
• 승인일 2009년 07월 27일
• 교신저자 : 황민우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한의학전문대학원
사상체질과
Tel : +80-51-510-8483 Fax : +82-51-510-8484
E-mail : azure92@hanmail.net

I. 緒 論

四象醫學은 1894년 東武 李濟馬(AD. 1837- 1900, 이하 ‘東武’로 약칭)가 저술한 『東醫壽世保元』을 통해서 창안된 의학이다.

『東醫壽世保元』에 의하면 少陰人은 人稟臟理로서 腎大脾小한 臟局을 天稟으로 타고나며, 人趨心慾으로서 棄義而偷逸하여 儒人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少陰人은 行身不誠, 知人不明하게 되면 深樂과 浪喜로 인하여 下降하는 기운이 많아지고 脾의 上升하는 기운이 적어지게 되어 결국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가 損傷되어 表裏病證이 발현하게 된다.

少陰人의 病理에 관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表裏病證에 관한 고찰은 조¹, 박², 이³, 곽⁴, 고⁵ 등의 연구가 있었고, 少陰人의 病理에 관한 연구로는 이³, 이⁶, 이⁷, 한^{8,10}, 임¹¹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表裏病證의 발생기전과 水穀寒熱의 上下升降을 통하여 少陰人 病證에 관한 다양한 考察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서 少陰人 病理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의 관점을 적용하여 少陰人 表裏病證을 해석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少陰人 保命之主인 陽煖之氣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少陰人의 表裏病證을 해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表裏病證의 發生機轉과 少陰人의 表裏病證을 「臟腑論」의 관점으로 生理的, 病理的 機轉을 圖式化하고, 이를 바탕으로 少陰人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중심으로 少陰人 病理를 고찰하여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본 고찰에서는 東武의 著作으로 알려진 『東武遺稿』¹²,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³, 『東醫壽世保元·甲午本』¹⁴, 『東醫壽世保元·辛丑本』¹⁵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東醫壽

世保元四象草本卷』은 草本卷으로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은 甲午本이라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 辛丑本이라 약칭한다.

2. 연구방법

이상의 東武의 著作에서 少陰人의 生理와 病理에 관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고, 이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시대적인 순서를 고려하여 고찰하였다.

- (1) 본 고찰에서 사용되는 表病, 裏病, 表病證, 裏病證, 表病症狀, 裏病症狀의 용어는 곽⁴의 개념 정의를 따랐다. 즉 少陰人에서는 表病은 腎受熱 表熱病, 裏病은 胃受寒裏寒病이고, 表病證은 鬱狂證, 亡陽證, 太陽病厥陰證, 裏病證은 太陰證, 少陰證, 太陰病陰毒證이고, 表病症狀과 裏病症狀은 表裏病證에서 나타나는 개개 症狀의 개념이다.
- (2) 四象醫學에서 언급되는 耳目鼻口, 肺脾肝腎, 頷臆臍腹, 頭肩腰腎, 胃脘胃小腸大腸, 皮筋肉骨 등은 단순한 인체의 부위에 해당되는 形而下學的 개념 이외에 形而上學的 개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번 고찰에서는 形而下學的의 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 (3) 病理를 고찰함에 있어서 少陰人의 病理는 水穀熱氣와 水穀寒氣의 上下升降으로 설명되어지므로, 臟腑論의 四黨 가운데 水穀之氣 代謝에 관여하는 脾黨과 腎黨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前四海와 後四海는 각각 胃脘胃小腸大腸과 頭腦背脊腰脊膀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적용하여 따로 前四海와 後四海를 고려하지 않았다.

III. 本 論

1. 草本卷과 遺稿에서 나타난 少陰人의 生理 및 病理

『草本卷』에서 “脾腎者 出納水穀道之府庫”¹⁾이라고 하였고,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²⁾이라고 하였으며, “少陰人泄穀之大腸潤 而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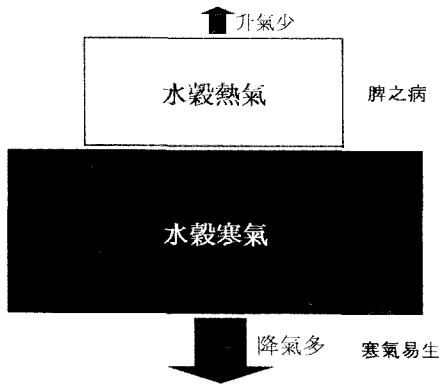


Figure 1. The physiologic & pathologic schema of Soseumin in DYG(遺稿), DSS(草本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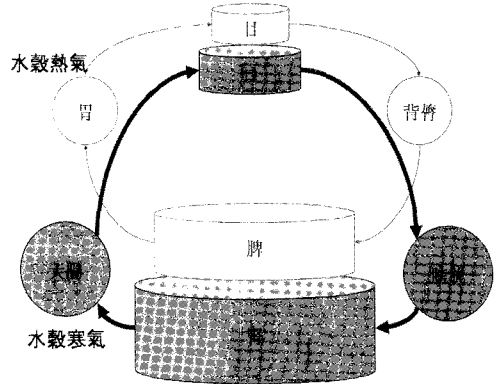


Figure 2. The circular schema of Water-Food Hot Qi & Water-Food Cold Qi in DGO(甲午本)

穀之胃窄 譬如停溜之水泉益來則 寒氣易生也”³⁾라고 하였다. 그리고 遺稿에서는 “脾之病降氣多而升氣少”⁴⁾라고 하였다.

이는 少陰人은 人窠臟理로서 腎大脾小한 臟局을 타고나서 水穀熱氣가 不足하고, 水穀寒氣가 太過하기 쉬우므로 寒氣가 잘 생긴다. 그리고 水穀熱氣의 升氣가 적고, 水穀寒氣가 많아져서 특히 脾의 陽煖之氣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少陰人病人 脾之病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甲午本』에서 少陰人 保命之主를 陽煖之氣라고 하여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이상을 간략하게 圖式化하면 Figure 1과 같다.

2. 甲午本 「臟腑論」의 水穀寒熱의 생리적 순환구조와 表病과 裏病의 發生機轉

(1) 『甲午本』 「臟腑論」의 水穀寒熱의 생리적 순환구조

『甲午本』 「臟腑論」⁵⁾에서 水穀熱氣와 水穀

寒氣의 순환구조와 少陰人의 腎大脾小한 臟局을 관련지어 少陰人 生理機轉을 圖式化하면 Figure 2와 같다.

이상의 「臟腑論」에서 언급되는 水穀熱氣와 水穀寒氣의 순환구조는 각각 脾黨과 腎黨에만 국한되어서 순환하는 횡적인 구조이다. 물론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 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 而爲寒氣”⁶⁾라고 四腑 간의 上下로 종적인 水穀의 溫熱涼寒氣의 상관성도 언급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四腑에 국한된 내용으로 胃의 熱氣와 大腸의 寒氣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2) 表病과 裏病의 해석

『甲午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⁷⁾의 내용

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 出于日而爲氣 入于背脊 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 外歸于筋故 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甲午本』 4-7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 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 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 外歸于骨故 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6) 『甲午本』 4-2 水穀 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都數 停畜於胃 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 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 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 而爲寒氣.

7) 『甲午本』 15-10 (中略) 太陽人內觸病 太重於解你病而 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深着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裏氣故 解你表證 以戒哀

1) 『草本卷』 5-10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 散充氣道之門戶也.
 2) 『草本卷』 5-9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 氣道通於三焦 虛實均適於表裏.
 3) 『草本卷』 16-12 少陰人 受穀胃氣窄 而出粕之大腸膀胱氣闊 而比如灌沓之泉 舊灌已泄 新灌疊至 生冷氣自生也.
 4) 『遺稿』 10-18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附子當歸川芎木香陳皮麥朮鹿茸紫河車之類 升力有餘 故脾病之古藥也 石膏黃連澤瀉山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脾病之凶藥也.
 5) 『甲午本』 4-5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脰間兩乳

Table 1. The injury of exterior & interior Qi(表裏氣) by nature-emotion Qi(性情) in Sasangin(太少陰陽人)

	性	傷表氣	情	傷裏氣
太陽人	哀性	傷 鼻·腰脊氣	怒情	傷 肝·小腸氣
少陽人	怒性	傷 口·膀胱氣	哀情	傷 腎·大腸氣
太陰人	喜性	傷 耳·腦髓氣	樂情	傷 肺·胃脘氣
少陰人	樂性	傷 目·膂氣	喜情	傷 脾·胃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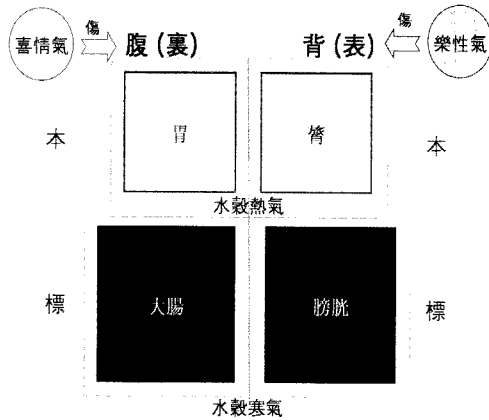


Figure 3. The schema of exterior & interior disease(表裏病) of Soeumin in D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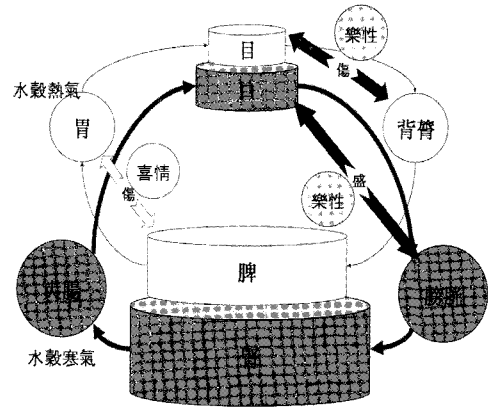


Figure 4. The schema of exterior & interior disease(表裏病) of Soeumin

과 조¹, 박², 이³, 권⁴, 고⁵의 연구에 의하면 表病은 性에 의하여 表氣가 傷한 병이고 裏病은 情에 의하여 裏氣가 傷한 병이라고 하였다(Table 1). 少陰人의 경우에는 樂性에 의해 表氣인 目膂氣가 손상되고 喜情에 의해 裏氣인 脾胃氣가 손상된다.

이상의 表病과 裏病을 『甲午本』 「醫源論」의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 在於腹背表裏 而不必究其經絡之變也”의 腹背表裏의 개념과 甲午本의 標本概念⁸⁾과 表裏之表裏病⁹⁾의 개념을 적용하여 少陰人의 表裏病을 圖式化하면 Figure 3과 같다.

(3) 臟腑論에 근거한 少陰人 表裏病의 病理機轉 앞서 설명한 「臟腑論」의 水穀寒熱의 생리적 순환구조와 表病과 裏病의 발생기전을 조합하여 圖式化하면 Figure 4와 같다.

Figure 4를 살펴보면, 少陰人 樂性이 太過하면 目과 背膂의 水穀熱氣를 傷하여 表病을 만들고, 少陰人 喜情이 浪發하면 脾와 胃의 水穀熱氣를 傷하여 裏病을 만든다.

少陰人에서 表病이 발생되면 目과 背膂에 있는 陽煖之氣가 1차적으로 損傷되어 이로 인하여 頭背部의 脾黨熱氣가 不足하게 된다. 그러므로 少陰人 表病의 病因은 樂性이고, 이로써 유발되는 目膂의 陽煖之氣의 不足이 1차적인 原因이 된다. 마찬가지로 少陰人에서 裏病이 발생되면 脾와 胃에 있는 陽煖之氣가 1차적으로 損傷되어 臟腑의 脾黨熱氣가 不足하게 된다. 그러므로 少陰人 裏病의 病因은 喜情이고, 이로써 유발되는 脾胃의 陽煖之氣의 不足이 1차적인 原因이 된다.

그러므로 少陰人 表裏病은 樂性喜情이 病因

遠怒 兼言之也. 日然則 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膂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髓氣 樂情 傷肺胃脘氣乎. 日然.

8) 『甲午本』 11-3 少陰人 以陽煖之氣 爲保命之主故 膂胃爲本而 膀胱大腸爲標也.

9) 『甲午本』 11-1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陽明病 卽少陰人之表病也. 太陰少陰病 卽少陰人之裏病也而 太陽病 表之表病也 陽明病 表之裏病也 太陰病 裏之表病也 少陰病 裏之裏病也.

으로 작용하여 損傷되는 부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陽煖之氣의 不足으로 인하여 病證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表病의 發生機轉은 결과적으로는 表氣를 傷해서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樂性이 深確하면 우선적으로 腎局의 水穀寒氣를 盛한다고 하였고¹⁰⁾,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故 少陰之精 充足於膀胱 而歸腎者大也”¹¹⁾라고 하여 腎局의 水穀寒氣가 더욱 太過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少陰人 鬱狂證을 설명하면서 “脾局陽氣爲 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爲邪所拒”¹²⁾라고 하여 水穀寒氣가 더욱 太過하여 腎局에서 脾局으로 上升하는 陽氣를 가로막는 寒邪로 작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裏病의 發生機轉은 表病과는 조금 다르게 직접적으로 裏氣를 傷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喜情이 직접 脾黨을 손상시킨다고 하였고¹³⁾, 喜好不定하면 직접 臟을 손상시킨다¹⁴⁾라고 하였다.

결국, 少陰人의 表病과 裏病은 그 病因이 樂性和 喜情으로 달라 脾黨 가운데 손상되는 부위는 上下前後로 다르지만, 陽煖之氣의 不足이라는 原因은 동일하다.

3. 甲午本에 나타난 少陰人 生理, 病理機轉

『甲午本』에서는 앞서 「臟腑論」에서 언급된 Figure 2처럼 水穀熱氣와 水穀寒氣가 각각 脾黨과 腎黨 안을 순환하는 횡적인 순환구조 외에 脾黨과 腎黨간의 종적인 순환구조 또한 언급되어 있다. 「臟腑論」에서의 횡적인 순환구조는 모두 水穀熱氣와

水穀寒氣가 각각 脾黨과 腎黨 안에서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甲午本』 「少陰人病證論」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적인 구조는 水穀熱氣와 水穀寒氣의 순환이 아니라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순환이므로 서로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甲午本』 「少陰人病證論」인 「外感腎病論」에서 太陽病厥陰證을 설명하면서, “膂氣(陽氣), 衛氣, 胃氣(穀氣), 溫氣”¹⁵⁾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陽煖之氣의 위치와 기능에 따른 다른 명칭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순환구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Figure 5와 같다.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膂氣(陽氣)는 膀胱에서 背脊로 上升하는 陽煖之氣로 衛氣의 衛外하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다. 『甲午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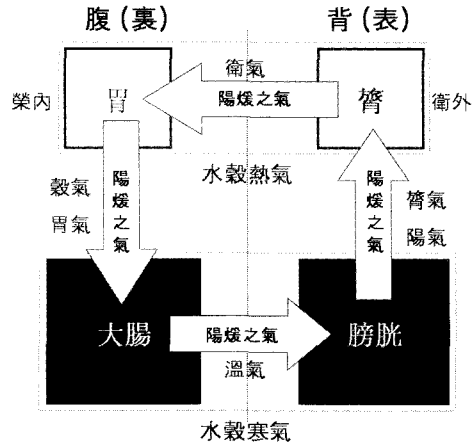


Figure 5. The circular schema of Warm Yang Qi(陽煖之氣) in DGO(甲午本)

- 10) 『甲午本』 2-10 (中略)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 11) 『甲午本』 3-4 (中略)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故 少陰之精 充足於膀胱 而歸腎者大也 少陰之視 不能廣博於世會故 少陰之氣 不充足於背腎 而歸脾者小也.
- 12) 『辛丑本』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中略)
- 13) 『甲午本』 2-17 (中略) 乍發喜而乍收喜 則胸腋 乍開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 則脾其不傷乎. ...
- 14) 『甲午本』 2-22 (中略) 樂性極則喜情動 (中略) 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中略)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 15) 『甲午本』 6-55 膂氣衛外 膂氣者 陽氣也. 胃氣榮內 胃氣者 穀氣也. 陽氣 自膀胱而上升於膂膜也 穀氣 自胃中而下達於大腸也. 膀胱之氣 受溫氣於大腸 胃中之氣 禦外寒以膂膜. 少陰人傷寒病 正邪相爭累日不快則 陽氣之 上衛於膂膜者 塞滯 故胃氣之外以禦寒氣而中以所自立者 亦單弱也. 胃氣單弱則 穀氣之下達於大腸者 亦微薄 故膀胱之受溫氣於大腸 又微薄也. 膂膜之衛氣塞滯者 桂枝之屬 可以補之也. 大腸之溫氣微薄者 理中之屬 可以補之也. 蓋太陽病厥陰證 正邪相持累日之餘 胃氣單弱而大腸溫氣微薄 故猝然而厥也.

“膀胱者 陰之分局也. 陰氣者 寒氣也. 膂膜者 陽之分局也. 陽氣者 熱氣也”¹⁶⁾이라고 하여 膀胱은 水穀寒氣의 分局(腎局)이고 膂膜은 水穀熱氣의 分局(脾局)에 해당된다. 이러한 水穀寒熱의 설정과는 별도로 膀胱表局의 外禦之陽가 부족하면 惡寒이 생기고 膂膜裏局의 內守之陽이 부족하면 煩熱이 나타난다¹⁷⁾고 하여 陽氣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外禦之陽와 內守之陽은 모두 陽煖之氣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膀胱表局에서 惡寒이 생기는 증상도 外寒을 떨쳐내려는 작용이므로 外禦之陽은 膂氣(陽氣)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衛氣는 背膂에서 胃로 前面으로 橫行하는 陽煖之氣로 胃氣(穀氣)의 榮內하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胃氣(穀氣)는 胃에서 大腸으로 내려가는 陽煖之氣로서 榮內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甲午本』에서 太陰證과 黃疸에 관하여 모두 大腸으로 내려가는 胃氣가 虛弱하여 消化에 문제를 야기시켜 下利하는 병증으로 설명¹⁸⁾하고 있으므로 胃氣는 직접 消化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臟腑論」에서 언급된 “水穀之都數 停畜於胃 而薰蒸爲熱氣”¹⁹⁾와 같이 胃氣의 작용으로 水穀을 薰蒸하여 水穀熱氣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消化의 작용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消化는 少陰人의 完實無病人 飲食善化의 의미이므로 이 또한 少陰人의 陽煖之氣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太陽病 胃家實과 太陰病 黃疸을 비교 하면서 “太陰病 腹滿食不下而表氣壅遏之病 始發於太陰大腸之胃氣 不能逐冷氣而 太陽膀胱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黃疸而 危證之勢 終至入腹喘滿也.”²⁰⁾ 라고 하였으므로, 결국 胃氣는 陽煖之氣로 大腸의 冷氣를 몰아내는 작용을 한다.

溫氣는 大腸에서 膀胱으로 後面으로 橫行하는 陽煖之氣로 膀胱의 陽氣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溫氣의 개념은 「臟腑論」에서의 水穀溫氣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된 “膂氣(陽氣), 衛氣, 胃氣(穀氣), 溫氣” 모두 陽煖之氣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것일 뿐이며, 다만 陽煖之氣의 溫熱 차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陽煖之氣 가운데 비교적 陽煖한 기운이 약하다는 의미에서 溫氣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甲午本』 「少陰人病證論」에서 “膂氣(陽氣), 衛氣, 胃氣(穀氣), 溫氣”로 표현되는 陽煖之氣의 前後上下의 순환을 통하여 脾黨의 水穀熱氣와 腎黨의 水穀寒氣를 上下로 交濟하는 生理機轉을 이루고 있다. 草本卷의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²¹⁾라고 한 언급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4. 甲午本 臟腑論과 少陰人 病證論에서 언급된 少陰人 生理機轉의 고찰

앞서 살펴본 『甲午本』 「臟腑論」의 水穀寒熱氣의 循環구조와 少陰人病證論에서 언급된 陽煖之氣의 循環구조를 종합하여 少陰人 生理機轉을 圖式化해보면 Figure 6과 같다.

이상의 圖式에서 陽煖之氣의 循環구조를 적용 하면서 새로운 두 가지 구조를 적용하였다. 하나는

- 16) 『甲午本』 6-32 膀胱者 陰之分局也. 陰氣者 寒氣也. 膂膜者 陽之分局也. 陽氣者 熱氣也. (中略)
- 17) 『甲午本』 6-32 (中略) 膀胱表局 外禦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膀胱之表局者 以正犯邪故惡寒也. 惡寒不作者 正不退邪也. 正不退邪者 太陽力屈之病也. 膂膜裏局 內守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膂膜之裏局者 以邪犯正故煩熱也. 煩熱虛張者 邪益逼正也. 邪益逼正者 即陽明勢孤之病也. 二證俱爲重險證 當用藥急救之 不用藥急救之則 重者必危 危者必傾.
- 18) 『甲午本』 7-13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壅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 能變革消化 下利之證也. (中略)
- 『甲午本』 7-27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壅滯而歷三四日至五六七日 新氣雖則添積漸不快健 終不變革消化 下利之證也. (中略)
- 19) 『甲午本』 4-2 水穀 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都數 停畜於胃 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 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 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 而爲寒氣.

- 20) 『甲午本』 7-28 論曰 太陽病 表證因而在而小腹硬滿之病 始發於太陽膀胱之陽氣 不能逐寒氣而 太陰大腸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胃家實而 危險之勢 終至於潮熱直視也. 太陰病 腹滿食不下而表氣壅遏之病 始發於太陰大腸之胃氣 不能逐冷氣而 太陽膀胱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黃疸而 危證之勢 終至入腹喘滿也. 然胃家實病 人皆危之而早圖 故十生八九 黃疸病 人皆易之而緩圖 故十死八九. 胃家實病 有惡寒則 病必解 黃疸病 有腹痛則 病必解.
- 21) 『草本卷』 5-9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 氣道通於三焦 虛實均適於表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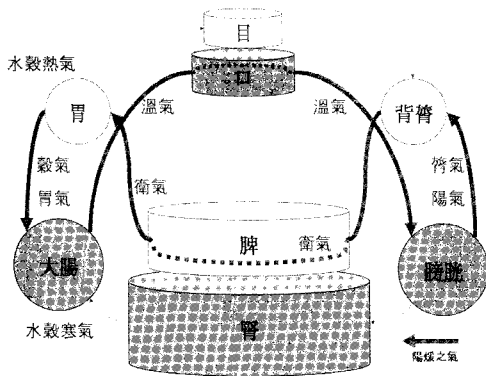


Figure 6. The physiologic schema of Soeumin in DGO (甲午本 臟腑論)

背脊에서 나오는 衛氣가 脾를 통해서 胃로 가는 구도이고, 다른 하나는 大腸에서 나오는 溫氣가 口를 통해서 膀胱으로 가는 구도이다.

먼저 背脊에서 나오는 陽緩之氣인 衛氣가 脾를 통해서 胃로 가는 구도는 『甲午本』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서 언급된 “水穀 納於胃而脾衛之”²²⁾과 臟腑論에서 언급된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²³⁾를 근거로 하여 水穀熱氣가 순환하는데 逆行하지 않고 順行하는 방향에 맞춰 설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大腸에서 나오는 陽緩之氣인 溫氣가 口를 통해서 膀胱으로 가는 구도도 또한 水穀寒氣가 순환하는데 逆行하지 않고 順行하는 방향을 맞춰 설정한 것이다. 즉 大腸의 溫氣가 太過한 水穀寒氣가 순환하여 腎에서 大腸으로 오는 방향에 逆行하지 않고, 水穀寒氣가 大腸에서 口로 나가는 방향으로 順行하는 것이 『臟腑論』과 적합한 구도로 보아 적용한 것이다.

『甲午本』에서 언급된 表裏病과 表裏病證의 病理機轉을 Figure 6의 生理機轉을 바탕으로 圖式 및 解釋이 가능하다, 본 고찰에서는 마지막으로 改抄된 『辛丑本』의 生理機轉과 病理機轉의 圖式 및 解釋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5. 甲午本과 辛丑本에서의 少陰人 病證論 비교 고찰

여기서는 『甲午本』과 『辛丑本』의 「少陰人 病證論」에서 表裏病, 表裏病證의 病證分類와 治法의 변화가 판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비교고찰을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그 비교고찰을 반영하여 『辛丑本』의 少陰人 生理機轉을 圖式化하도록 하겠다.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太陽人을 제외하고 太少陰陽人의 篇名이 바뀌면서 기본적인 病證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다.

外感과 內觸의 立場으로 表裏病을 구분했던 『甲午本』의 病因病理 개념이 『辛丑本』으로 오면서 外感內觸의 病因 개념이 사라지고, 臟腑의 기능을 중심으로 寒熱에 따라 表裏病을 나누고 있다. 즉 少陰人에서는 『甲午本』에서의 「外感腎病論」이라 篇名을 삼았던 表病을 『辛丑本』에서는 「腎受熱表熱病」으로 改抄하여 腎이라는 臟의 개념과 熱이라는 특징으로 表病을 규정하였다. 또한 「內觸胃病論」이라 篇名을 삼았던 裏病을 『辛丑本』에서는 「胃受寒裏寒病」으로 改抄하여 胃이라는 腑의 개념과 寒이라는 특징으로 裏病을 규정하였다.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病證으로 太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으로 크게 4분하여, 太陽病은 表之表病에, 陽明病은 表之裏病에, 太陰病은 裏之表病에, 少陰病은 裏之裏病에 配屬²⁴⁾하였다. 辛丑本에서는 表病論의 鬱狂과 亡陽, 裏病論의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定立되었다.

表病의 病證分類는 『甲午本』의 太陽病과 陽明病에서 『辛丑本』의 鬱狂과 亡陽으로 바뀌게 된다. 『甲午本』에서 太陽病과 陽明病은 發熱形證은 동일하나 惡寒不惡寒의 유무로 구분하게 된다.²⁵⁾ 『辛丑本』에서 鬱狂과 亡陽은 發熱形證은 동일하나 汗出不汗出의 유무로 구분하게 되며, 鬱

22) 『甲午本』 15-8 (中略) 水穀 納於胃 而脾衛之 出於大腸 而脾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 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 而肺衛之 吸於小腸 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 而迭爲進退者也. (中略)
23) 『甲午本』 4-15 (中略)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 (中略)

24) 『甲午本』 11-1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陽明病即 少陰人之表病也 太陰少陰病 即少陰人之裏病也 而太陽病表之表病也 陽明病表之裏病也 太陰病裏之表病也 少陰病裏之裏病也
25) 『甲午本』 8-1 論曰 發熱惡寒者 爲太陽病 發熱不惡寒者 爲陽明病 太陽陽明之發熱形證 一也 而惡寒不惡寒之間 相去遠甚 而陽氣之進退強弱 泰山之比岡陵也. (中略)

Table 2. The change of pathologic concept from Taeyang-disease(太陽病) in DGO(甲午本) to Ulkwang-syndrome(鬱狂證) in DSC(辛丑本)

	甲午本 外感營病論	辛丑本 腎受熱表熱病
病證	太陽病	鬱狂證
其人如狂	膈間陽氣困熱	腎陽困熱
小腹硬滿	胸間胃氣怕寒	大腸怕寒
下焦血證	少陰人膈間陽氣未能透表而 鬱畜膀胱之證	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
治法	益氣升陽	益氣升陽

Table 3. The change of medical treatment in interior disease(裏病) from DGO(甲午本) to DSC(辛丑本)

	甲午本 內觸胃病論		辛丑本 胃受寒裏寒病	
病證	太陰病	少陰病	太陰病	少陰病
治法	以助溫煖	以制陰寒	溫胃而降陰	健脾而降陰

狂과 亡陽은 모두 太陽病과 陽明病을 가지고 있다²⁶⁾.

그리고 『甲午本』 「少陰人外感營病論」에서 太陽病에 관하여 其人如狂을 膈間陽氣困熱로, 少腹硬滿을 胸間胃氣怕寒으로 설명²⁷⁾하고 張仲景所論 太陽病下焦血證은 少陰人의 膈間陽氣가 透表하지 못하고 鬱畜膀胱한 證²⁸⁾이라고 하여 益氣升陽의 治法을 적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병증인식이 『辛丑本』 「腎受熱表熱病」에서 이르러서는 鬱狂證을 관하여 其人如狂을 腎陽困熱로, 小腹硬滿을 大腸怕寒으로 설명하고²⁹⁾ 張仲景所論 下焦血證을 “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이라고 하여 益氣升陽의 治法을 적용할 것으로 개조하였다. 결국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改抄가 되면서 益氣升陽의 治法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甲午本』에서 병증의 발생부위가 膈와 胃, 즉 表裏之裏病으로 本(標本 중에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가 『辛丑

本』에서는 병증의 발생부위를 腎와 大腸, 즉 腎局으로 인식하였다(Table 2).

裏病에서 『甲午本』의 太陰病과 少陰病의 病證分類는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바뀌지 않는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동일하게 太陰病과 少陰病은 모두 自利形證은 동일하지만 渴不渴의 유무로 구분하게 된다³⁰⁾. 그러나 『甲午本』에서는 太陰病의 治法을 以助溫煖으로 少陰病의 治法을 以制陰寒으로 설명하고 있는데³¹⁾,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太陰病의 治法을 溫胃而降陰으로 少陰病의 治法을 健脾而降陰으로 설명하고 있다³²⁾.

그리고 太陰病의 瀉心湯證, 陰毒證, 黃疸, 水結胸, 寒實結胸과 少陰病의 藏厥證, 下利清水證, 陰盛格陽證, 乾霍亂關格病은 改抄되면서 부분적으로 편제를 이동하게 된다. 특히 『甲午本』의 少陰病 범주에서 설명되었던 乾霍亂關格證은 改

26) 『辛丑本』 6-36 (中略) 陽證 自汗不出 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鬱狂證也 自汗出 而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亡陽證也.
 27) 『辛丑本』 6-12 (中略) 此證 其人如狂者 膈間陽氣困熱也, 少腹硬滿者 胸間胃氣怕寒也. (中略)
 28) 『甲午本』 6-13 張仲景所論 太陽病下焦血證 卽少陰人膈間陽氣未能透表而 鬱畜膀胱之證也. (中略)
 29) 『辛丑本』 6-11 (中略)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中略)

30) 『甲午本』 8-1 / 8-1 (中略)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 一也 而 渴不渴之間 相去遠甚而 冷氣之聚散輕重 雲夢之比溼澤也. (中略)
 31) 『甲午本』 7-56 下利清穀者 雖日數十行 口中必不燥 乾而冷氣外解也 當用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以助溫煖 好也. 下利清水者 雖日一二行 口中必益燥 乾而冷氣內侵也 當用 芎藭葱蘇理中湯 桂附霍陳理中湯 以制陰寒 可也.
 32) 『辛丑本』 7-11 (中略) 少陰人病 下利清穀者 積滯自解也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抄되면서 편제가 이동되어 太陰病陰毒證에 이어서 설명되고 있고, 새로이 少陰病 治驗例가 『辛丑本』에서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少陰人 裏病證에서도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改抄가 되면서 太陰病과 少陰病이라는 病證分類의 틀은 유지되었으나, 세부적인 病證認識의 발전이 『辛丑本』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3).

6. 辛丑本 臟腑論과 少陰人 病證論에서 언급된 少陰人 生理 및 病理機轉의 고찰

(1) 少陰人 生理機轉

앞서 Figure 6에서 살펴보았던 『甲午本』의 生理機轉을 바탕으로 『辛丑本』의 발전된 병증인식을 적용하여 少陰人 生理機轉을 圖式化하면 Figur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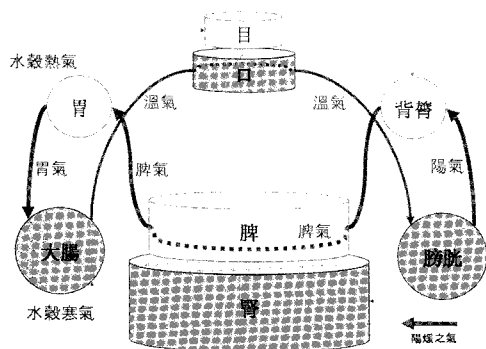


Figure 7. The physiologic schema of Soeumin in DSC (辛丑本 臟腑論)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 사용되었던 腎氣, 穀氣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새로이 脾局과 腎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腎氣, 穀氣의 용어는 각각 陽氣와 胃氣가 대신하고 생략되었다. 그리고 張仲景所論 下焦血證을 설명하면서 “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라고 하여 脾局과 腎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좁게는 膀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背脊를 脾局, 膀胱을 腎局으로 볼 수도 있고, 넓게는 각각 脾黨과 腎黨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상기 圖式에서는 앞서 『甲午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로 크게 두 가지의 순환구도가 있다. 하나는 『臟腑論』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水穀熱氣와 水穀寒氣가 脾黨과 腎黨의 각각에서 순환하는 구도이다. 다른 하나는 水穀熱氣와 水穀寒氣와는 다르게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緩之氣가 순환하는 구도이다.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臟局을 타고남으로 水穀熱氣가 순환하는 脾黨의 기운이 不足하고, 水穀寒氣가 순환하는 腎黨의 기운이 太過하다.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緩之氣가 水穀熱氣가 순환하는 脾黨을 도와주어 水穀熱氣를 유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水穀寒氣가 순환하는 腎黨에도 陽緩之氣가 순환하여 水穀寒氣가 너무 太過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少陰人은 生理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횡적으로만 순환하는 水穀寒熱의 순환구도 외에도 上下로 寒熱을 승강시키는 陽緩之氣의 순환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少陰人의 陽緩之氣가 生成되는 가장 주요한 부분은 脾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遺稿에서 少陰人藥을 脾藥이라고 하여 모두 脾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³³⁾, 『草本卷』에서 脾元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³⁴⁾. 또한 『辛丑本』에서 險危證에 해당되는 亡陽病에서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³⁵⁾라고 하여 脾가 少陰人의 裏熱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위로 설정한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險危證에 해당되는 少陰病에서 健脾而降陰의 治法을 사용하라고 한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脾에서 생성된 陽緩之氣는 脾氣로써 胃를 保衛³⁶⁾하여 膏海를 鼓動³⁷⁾시키는 작용을 통하여 胃氣로 하여금 水穀을

33) 『遺稿』 9-1 人參 補脾和脾 白朮 健脾直脾 灸甘草 固脾立脾 當歸 壯脾而有內守之力 川芎 壯脾而有外攘之勢 官桂 壯脾而有充足內外之力 (中略)

34) 『草本卷』 11-9 (中略) 蓋脾氣喜完聚而忌損散 故凡藥性之過于橫散者 或炒 或灸 或炮 使完聚而保脾元 (中略)

35) 『辛丑本』 6-38 (中略) 脾約病 其始焉 身熱 汗自出不惡寒而若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36) 『甲午本』 15-8 (中略) 曰水穀 納於胃 而脾衛之 出於大腸 而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 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 而肺衛之 吸於小腸 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 而迭爲進退者也 (中略)

37) 『甲午本』 4-9 / 4-9 … 脾 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曠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 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

熏蒸시켜 消化를 도와 水穀熱氣를 만들어 낸다.

胃氣는 水穀을 熏蒸시켜 消化를 도와 水穀熱氣를 만들어내고, 大腸으로 내려가 溫氣를 도와 水穀寒氣가 멎쳐 痙冷積滯가 생기지 않도록 陽煖之氣로 찬 기운을 풀어서 大便으로 나가게 하는 작용을 돕는다. 少陰人 太陰證의 治法인 溫胃而降陰에 서의 胃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溫氣는 鬱狂證에서 小腹硬滿은 大腸怕寒이라고 하였으며, 少陰人 太陰證에서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³⁸⁾라고 하여 알 수 있듯이 大腸에서 冷氣를 몰아 내는 작용을 하며, 口를 통해 膀胱으로 溫氣로써 陽煖之氣가 전해진다.

陽氣는 陽煖之氣가 背脊로 上升하는 기운을 말 하며, 鬱狂證에서 “鬱縮膀胱之證”이라고 하였고, 其人如狂은 腎陽困熱이라고 하였으며, 發熱과 惡寒의 병리를 설명하면서 陽氣가 振寒하는 작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⁹⁾. 여기서 腎陽困熱의 腎은 鬱縮膀胱의 膀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작용은 陽氣와 背脊로 상승하면서 外寒을 막아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臟腑論』을 바탕으로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순환구조 圖式化한 少陰人의 生理機轉을 바탕으로 少陰人 表裏病의 病理機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少陰人 病理機轉

少陰人 樂性이 太過하면 表氣(目, 背脊)의 水穀熱氣를 傷하여 表病을 만들고, 少陰人 喜情이 浪發하면 裏氣(脾, 胃)의 水穀熱氣를 傷하여 裏病을 만든다고 앞서 살펴보았다.

① 少陰人 鬱狂證

少陰人 鬱狂證은 樂性의 작용으로 腎局(특히, 口와 膀胱)의 水穀寒氣가 점점 커져 寒邪로 작용하고, 表氣(目과 背脊)의 陽氣(陽煖之氣)를 손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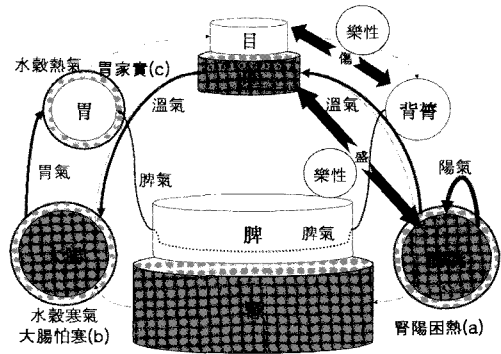


Figure 8. The pathologic schema of Ulkwang-syndrome (鬱狂證) in Soeumin

킴으로써 膀胱에서 背脊로 陽氣가 올라가지 못하고 膀胱에 陽氣가 鬱縮하여 생기는 病證이다. 다만 脾約하지 않으므로 自汗不出의 症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를 圖式하면 Figure 8과 같다.

膀胱에서 陽氣가 背脊로 올라가지 못하고 鬱縮 膀胱함으로 인하여 腎陽困熱(a)이 생겨 其人如狂하게 된다. 背脊에 陽氣가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外寒을 견디지 못하여 惡寒의 증상이 생기고, 膀胱에 陽氣가 困熱됨으로써 發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脾陽은 잘 유지되어 脾氣는 弱하지 않으므로(脾不弱) 陽煖之氣의 生成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不汗出한다⁴⁰⁾.

그리고 陽氣가 올라가지 못하여 大腸으로부터 膀胱에 전해지는 溫氣가 순환하지 못하고 大腸의 水穀寒氣인 寒邪를 둘러싸므로 인하여 大腸怕寒(b)이 되어 小腹硬滿하게 된다(鬱狂初證)⁴¹⁾. 이러한 大腸怕寒을 外熱包裹⁴²⁾이라고 하였고, 少陽人 結胸과 함께 少陰人의 傷寒病有 小腹硬滿之證, 즉 大腸怕寒을 모두 表氣陰陽이 虛弱하여 결국 裡氣가 秘澁不和하여 생기는 表裏兼病으로 설명

38) 『辛丑本』 7-28 蓋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39) 『辛丑本』 6-12 太陽病外證未除則 陽氣其力 雖有鬱抑 猶能振寒而與寒邪相爭於表也. 若外證盡除則 陽氣其力 不能振寒而遂爲弱困縮伏之勢也.

40) 『辛丑本』 6-20 (中略)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 脾不弱也 (中略)
41) 『辛丑本』 6-35 (中略)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中略)
42) 『辛丑本』 6-11 (中略) 大腸怕寒則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若外熱包裹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 則當用 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 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峻補之.

하고 있다.⁴³⁾

鬱狂初證이 진행하여 더 심하게 되면 背脊의 陽氣가 消盡되어 더 이상 外寒을 견디지 못함으로 인하여 不惡寒하게 되고, 胃에서 大腸으로 내려가는 胃氣 또한 약해지고 寒邪의 악영향으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므로 小腹硬滿이 심해져 不大便(便秘)의 증상이 되는 胃家實(c)이 생기게 된다(鬱狂中證)⁴⁴⁾.

더욱 심한 병증으로 진행하면 胃氣가 弱해지면서 表寒을 떨쳐내는 背脊의 陽氣가 손상되어 潮熱이 있게 되고, 脾氣 또한 일부 손상되면서 微汗出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鬱狂末證)⁴⁵⁾.

그러므로 治法은 益氣升陽을 하여 膀胱에서 背脊로 陽煖之氣가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腎陽困熱의 경우에는 益氣升陽의 治法을 그대로 적용하고, 大腸怕寒이 있는 경우에는 外熱과 裏冷이 섞여 있으므로 和解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여 大腸의 寒氣를 먼저 해결한 다음 升陽益氣의 治法을 사용한다.

② 少陰人 亡陽證

少陰人亡陽證은 鬱狂證과 동일하게 樂性의 작용으로 腎局(특히, 口와 膀胱)의 水穀寒氣가 점점 커져 寒邪로 작용하고, 表氣(目과 背脊)의 陽氣(陽煖之氣)를 손상시킴으로써 膀胱에서 背脊로 陽氣가 올라가지 못하고 膀胱에 陽氣가 鬱縮하여 생기는 病證이다. 그러나 鬱狂證과는 달리 亡陽證은 처음 病證이 發顯될 때부터 脾弱(a), 즉 陽煖之氣를 생성하는 脾氣가 약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亡陽證은 처음부터 自汗出의 증상이 동반되게 된다⁴⁶⁾. 이를 圖式하면 Figure 9과 같다.

少陰人 表病證은 鬱狂證과 亡陽證 공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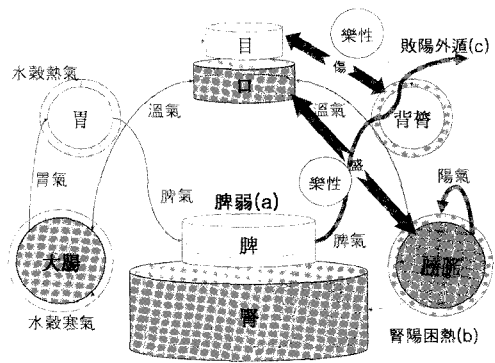


Figure 9. The pathologic schema of Mangyang-syndrome (亡陽證) in Soeurin

樂性에 의해 表氣가 손상됨으로써 그 병증이 발현되는 공통적인 병리기전을 지닌다. 그러나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 少陰人 亡陽과 少陽人 亡陰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少陰人 亡陽을 陰盛格陽하여 敗陽이 外遁하므로 煩熱, 汗多가 생긴다고 하였고, 少陽人 亡陰을 陽盛格陰하여 敗陰이 內遁하므로 畏寒, 泄下가 생긴다고 하였다.⁴⁷⁾ 또한 少陰人 亡陽을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遁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라고 하였고, 少陽人 亡陰을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 而內遁膈裡故 腸胃畏寒而泄下也”라고 하였다.⁴⁸⁾

亡陽의 病理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遁膀胱”라고 하여 陽氣가 胸膈으로 上升하지 못하고 大腸으로 下陷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공통 병리과정인 腎陽困熱을 설명하는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과

43) 『辛丑本』9-19 少陰人 傷寒病 有小腹硬滿之證 少陽人 傷寒病 有心下結胸之證 此二證 俱是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裡氣亦秘澁不和 而變生此證也.
 44) 『辛丑本』6-35 (中略)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中略)
 45) 『辛丑本』6-35 (中略)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中略)
 46) 『辛丑本』6-35 胃家實 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司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歧 元不相合.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47) 『辛丑本』9-31 (中略) 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遁 則煩熱而汗多也 此之謂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遁 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中略)
 48) 『辛丑本』9-32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 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 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遁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冰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 而內遁膈裡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

다르다. 즉 表病人 亡陽의 병리를 설명하면서 裏病의 발병 부위인 胸膈이나 大腸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腎陽困熱이나 鬱縮膀胱 등의 表病의 발병 부위로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또한 같은 表病證으로써 少陰人 亡陽과 비교설명하고 있는 少陽人 亡陰의 병리에서는 “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 而內通膈裡”라고 하여 陰氣가 膀胱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背脊로 上逆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表病의 발병 부위를 들어 잘 설명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少陰人 亡陽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차후에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본 고찰에서는 腎陽困熱의 병리와 樂性이 表氣를 傷하는 것을 亡陽證을 포함한 少陰人 表病證의 공통적인 病理로 간주하여 접근하였다.

少陰人 亡陽病 治驗例를 살펴보면, 발병하기 이전부터 泄瀉를 자주하고 汗出이 잘되는 素證을 지닌 것으로 나오는데⁴⁹⁾, 이를 통하여서도 少陰人 亡陽證은 鬱狂證과는 달리 脾弱의 素證의 상태에서 병증이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脾氣가 약한 素證을 지니고 있는 少陰人이 樂性으로 인하여 鬱狂證과 동일한 병리기전으로 鬱縮膀胱하여 腎陽困熱(b)함으로 인하여 發熱과 惡寒의 증상을 나타낸다. 脾弱하므로 처음부터 自汗出의 증상이 동반된다(亡陽初證)⁵⁰⁾.

亡陽初證이 진행하여 더 심하게 되면 鬱狂證과 동일한 病理機轉으로 發熱, 不惡寒, 不大便(便秘)의 증상이 생기며, 脾約으로 인하여 汗出은 지속되지만, 아직까지 小便是 淸利한 상태로 유지된다(亡陽中證)⁵¹⁾⁵²⁾. 不大便의 증상은 亡陽病 治驗例⁵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심한 병증으로 진행하면 發熱, 汗多, 不大便의 증상이 있고, 小便赤澁하게 된다⁵⁴⁾⁵⁵⁾. 또한 脾弱의 손상이 더욱 진행되어 裏熱을 지탱하는 脾氣가 끊어지는 징후로써 마침내 惡寒의 증상도 생기게 된다(亡陽末證)⁵⁶⁾. 위의 圖式을 이용하여 해석하면, 脾約으로 인하여 약해져 있는 脾氣, 즉 陽煖之氣가 寒邪에 쫓겨 敗陽이 背表로 外遁(c)함으로써 煩熱과 汗出이 있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治法은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益氣升陽하여야 하지만, 그 病證의 출발에서는 이미 脾弱이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溫補升陽과 不足한 陽煖之氣를 급히 도와주어야하므로 補脾和脾하는 人蔘⁵⁷⁾을 대용량으로 급히 사용하고, 脾元帥之藥으로 能驅逐脾元虛弱而不能除外冷 冷氣侮脾周匝凌侵於胃之四圍者한 경우에 사용하는 炮附子⁵⁸⁾를 小便의 색과 量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한다⁵⁹⁾.

그리고 少陰人 亡陽病에서 병이 나오려면 人中에서 먼저 汗出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⁶⁰⁾. 상기 圖式을 바탕으로 人中汗의 병리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亡陽病은 脾弱으로 인하여 自汗出이 있지만 人中에는 땀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脾弱으로 인하여 陽煖之氣를 生成하지 못함으로 胃氣와 溫氣

54) 『辛丑本』6-35 (中略)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中略)

55) 『辛丑本』6-37 亡陽病證 非但觀於汗也 必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淸利而自汗出 則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澁而自汗出 則陽明病 發熱汗多也 此危證也 然 少陽人裏熱證 太陰人表熱證 亦有汗多而小便赤澁者 宜察之 不可誤藥.

56) 『辛丑本』6-38 (中略) 脾約病 其始焉 身熱 汗自出 不惡寒而若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57) 『遺稿』9-1 人蔘 補脾和脾

58) 『遺稿』9-1 炮附子 爲脾元帥之藥 能驅逐脾元虛弱而不能除外冷 冷氣侮脾周匝 凌侵於胃之四圍者

59) 『辛丑本』『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亡陽病人 小便白而多 危有餘地 則用附子 一錢 日再服 小便赤而少 危無餘地 則用附子 二錢 日二三服 病在將危 用一錢 病在免危 用一錢 病在調理 亦一錢 日再服.

60) 『辛丑本』9-33 少陰人病 一日發汗 陽氣上升 人中穴 先汗 則病必愈也 而二日三日 汗不止 病不愈 則陽不上升 而亡陽無疑也 (中略)

『辛丑本』9-35 少陰人 病愈之汗 人中先汗 而一次發汗 胸膈 壯快而活澁 亡陽之汗 人中 或汗或不汗 屢次發汗 胸膈 悶躁而下陷也. (中略)

49) 『辛丑本』6-32 (中略) 此兒 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而 每飯時 汗流滿面矣 (中略)

50) 『辛丑本』6-35 (中略)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中略)

51) 『辛丑本』6-35 (中略)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中略)

52) 『辛丑本』6-37 亡陽病證 非但觀於汗也 必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淸利而自汗出 則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澁而自汗出 則陽明病 發熱汗多也 此危證也 然 少陽人裏熱證 太陰人表熱證 亦有汗多而小便赤澁者 宜察之 不可誤藥.

53) 『辛丑本』6-32 (中略) 忽一日 頭痛發熱 汗自出 大便秘燥. (中略) 六日平明 察其證候則 大便秘結已四五日 (中略)

의 작용이 순차적으로 감소하여 大腸溫氣가 口를 통해서 膀胱으로 陽煖之氣를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脾氣가 회복되어 陽煖之氣가 胃氣와 溫氣를 통해서 口에까지 도달하기 시작하면 人中汗이 나면서 병이 낫는 것으로 관련지어 설명해 볼 수 있다.

③ 少陰人 太陰病

少陰人 太陰病은 喜情의 작용으로 裏氣(脾와 胃) 가운데 胃를 손상시킴으로써 胃氣로 표현되는 陽氣(陽煖之氣)의 작용이 약화되어 大腸으로 내려가 水穀寒氣가 뭉쳐 생기는 痼冷積滯를 몰아내지 못하여 생기는 병증이다.

이를 圖式하면 Figure 10과 같다.

胃는 脾의 保衛으로써 脾氣의 도움을 받아 水穀을 熏蒸하여 熱氣를 만들어냄으로 消化에 작용하고, 胃氣으로써 大腸으로 내려가 大腸溫氣의 작용을 도와 水穀寒氣가 뭉쳐서 생기는 痼冷積滯를 내보내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⁶¹⁾. 脾氣는 크게 손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腹痛自利하는 裏病만 있고 身體痛, 骨節痛과 같은 表病의 증상은 없다⁶²⁾.

少陰人이 喜情으로 인하여 胃의 손상을 받게 되면 胃氣가 虛弱(a)하여 생기는데, 이 胃氣가 大腸으로 내려가지 못하여 大腸에 水穀寒氣로 인한 痼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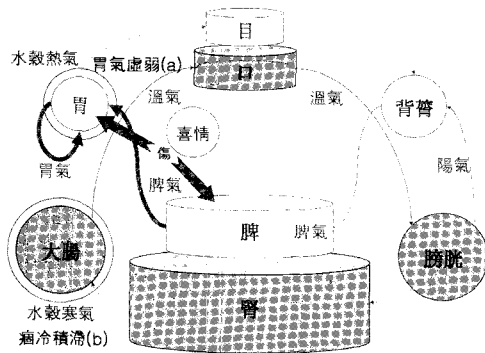


Figure 10. The pathologic schema of Taeum-syndrome (太陰證) in Soeumin

61) 『辛丑本』7-28 蓋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62) 『辛丑本』7-30 (中略) 少陰病 有身體痛骨節痛表證 此則表裏俱病 而大腸寒氣必勝胃中溫氣而上升也 太陰病 無身體痛骨節痛表證 此則裏病表不病 而胃中溫氣猶勝大腸寒氣而下降也.

積滯(b)가 쌓이게 되어 太陰病이 생기게 된다.

自利를 하는 太陰證으로 瀉心湯之變劑를 사용하는 경우⁶³⁾와 그리고 痞滿, 黃疸, 浮腫의 同出一證⁶⁴⁾의 경우가 모두 太陰病에 해당이 된다.

治法은 모두 溫胃而降陰을 해야 하는데, 胃氣를 따뜻하게 도와주게 되면 陽煖之氣가 大腸으로 내려가 大腸의 痼冷積滯를 풀어서 나가게 한다. 여기서 “降陰”의 “陰”을 痼冷積滯나 陰實之氣의 의미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正氣로서의 陰氣(寒氣)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陰”은 表病證의 해석에서 膀胱에서 背脊로 올라가는 陽氣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裏病證에서 胃에서 大腸으로 내려가는 “陰氣”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곧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陽煖之氣를 의미하며, 상기 圖式에서의 胃氣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降陰”을 “陽煖之氣를 아래로 내린다”는 의미로 胃氣의 작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少陰人의 太陰病陰毒證과 유사한 乾霍亂關格之病의 治驗例에서 “得人中汗者 始免危也 食滯大下者 次免危也 自然能吐者 快免危也”라고 하여⁶⁵⁾, 그 예후를 판단하였다. 여기서 人中汗을 상기의 圖式을 바탕으로 설명하여 보면, 胃氣가 虛弱하여 생긴 太陰證에서 그 병세가 나으려고 하면 大腸溫氣가 口를 통해서 膀胱으로 陽煖之氣를 전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陽煖之氣가 溫氣를 통해서 口에까지 도달하기 시작하면 人中汗이 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食滯大下는 胃氣가 점차 회복하여 消化作用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自然能吐는 胃氣가 상당히 회복하여 食滯한 것을 升氣시킬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63) 『辛丑本』7-11 論曰 病發於陰 而反下之云者 病發於胃弱 當用藿香正氣散 而反用大黃下之之謂也 …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藿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7-12 藿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心 皆張仲景瀉心湯之變劑也 此所謂青於藍者 出於藍 噫 青雖自青 若非其藍 青何得青.
64) 『辛丑本』7-67 (中略) 然 痞滿 黃疸 浮腫 同出一證 而有輕重 (中略)
65) 『辛丑本』7-17 (中略) 蓋少陰人 霍亂關格病 得人中汗者 始免危也 食滯大下者 次免危也 自然能吐者 快免危也 (中略)

해석할 수 있다.

④ 少陰人 少陰病

少陰人 少陰病은 喜情(喜好不定)의 작용으로 裏氣(脾와 胃) 가운데 脾를 손상시킴으로써 脾氣로 표현되는 陽氣(陽煖之氣)의 작용이 약화되어 胃氣를 保衛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大腸에 있는 痼冷積滯가 胃氣까지 逼迫하여 생기는 병증이다. 이를 圖式하면 Figure 11과 같다.

脾는 陽煖之氣를 생성하여 裏熱을 유지하고, 胃를 保衛하여 胃로 하여금 水穀을 熏蒸시켜 消化를 도와 熱氣를 만들고, 大腸溫氣가 痼冷積滯를 내보내도록 하는 작용을 도와준다⁶⁶⁾.

少陰人이 喜情으로 인하여 脾의 손상을 받게 되면 脾氣가 虛弱(a)한 상태에서 생기는데, 이 脾氣가 胃를 保衛하지 못하면 胃氣가 大腸으로 내려가지 못하여 大腸溫氣가 작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水穀寒氣로 인한 痼冷積滯(b)가 쌓이게 되어 下利清水하는 少陰病이 생기게 된다. 또한 脾弱으로 인하여 裏熱을 유지하지 못하고, 水穀寒氣인 痼冷積滯에 쫓겨 胸膈에 물려 煩躁하거나, 背表(c)에까지 영향을 미쳐 熱症과 통증을 위주로 하는 面小赤, 口中不和, 發熱, 汗出, 身體痛, 骨節痛 등과 같은 表病症狀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少陰病은 表病과 裏病이 동시에 나타나는 表裏俱病에 해당이 된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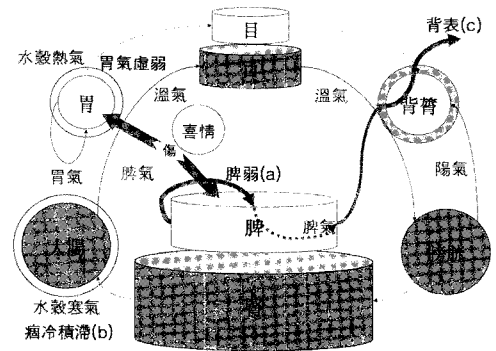


Figure 11. The pathologic schema of Soeum-syndrome (少陰證) in Soeumin

66) 『辛丑本』 7-28 蓋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67) 『辛丑本』 7-30 (中略) 少陰病 有身體痛骨節痛表證

自利를 하는 少陰病과 藏厥, 陰盛隔陽이 모두 少陰病에 해당이 된다.

治法은 모두 健脾而陰降을 해야 하는데, 不足한 脾의 陽煖之氣를 급히 補脾和脾하는 人蔘⁶⁸⁾과 脾元帥之藥으로 能驅逐脾元虛弱而不能除外冷冷氣侮脾周匝凌侵於胃之四圍者하는 炮附子⁶⁹⁾ 등을 사용하여 도와주어 胃를 保衛하여 胃氣를 따뜻하게 도와주게 되면 陽煖之氣가 大腸으로 내려가 大腸의 痼冷積滯를 풀어서 나가게 한다.

少陰病과 亡陽病은 辛丑本 내에서 그 治驗例⁷⁰⁾⁷¹⁾를 살펴보면 少陰病을 앓았던 少陰人 아이가 다음 해에 亡陽病을 앓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病證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亡陽病과 少陰病의 病理機轉 圖式을 살펴보면 두 병증은 모두 脾弱, 즉 陽煖之氣가 매우 약한 素證에서 출발한 病證에 해당된다. 다만 藥性으로 表氣가 상하여 병이 시작되면 表病證인 亡陽病이 되고, 喜情으로 裏氣가 상하여 병이 시작되면 裏病證인 少陰病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V. 結 論

少陰人의 生理 및 病理機轉을 圖式化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草本卷』과 『遺稿』에서는 少陰人의 病理를 “寒氣易生”, “降氣多而升氣少”로 설명하고 있다.
- 『甲午本』 『臟腑論』의 관점에서 少陰人은 脾黨과 腎黨에서 각각 水穀熱氣와 水穀寒氣의 항적인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甲午本』을 근거로 少陰人의 表病은 藥性에 의하여 表氣(目

此則表裏俱病 而大腸寒氣必勝胃中溫氣而上升也 太陰病 無身體痛骨節痛表證 此則裏病表不病 而胃中溫氣猶勝大腸寒氣而下降也.
68) 『遺稿』 9-1 人蔘 補脾和脾
69) 『遺稿』 9-1 炮附子 爲脾元帥之藥 能驅逐脾元虛弱而不能除外冷冷氣侮脾周匝 凌侵於胃之四圍者
70) 『辛丑本』 6-32 嘗治 少陰人 十一歲兒 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而 每飯時 汗流滿面矣. (中略)
71) 『辛丑本』 7-36 嘗見 少陰人 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 一二日 則必腹痛泄瀉 … 此兒 十歲 冬十二月 有下利清水病 十一歲 春二月 又得亡陽病.

- 膂氣)가 傷하고, 裏病은 喜情에 의하여 裏氣(脾胃氣)가 傷한다. 膂와 胃는 標本 중 本에 해당이 되며, 膂는 表之裏病, 胃는 裏之裏病에 해당이 된다. 少陰人 表裏病은 樂性喜情이 病因으로 작용하여 肝과 背膂, 脾와 胃의 陽煖之氣의 不足으로 인하여 病證이 발생한다.
3. 『甲午本』 『少陰人病證論』에서 “膂氣(陽氣), 衛氣, 胃氣(穀氣), 溫氣”로 표현되는 陽煖之氣의 前後上下의 순환을 통하여 脾黨의 水穀熱氣와 腎黨의 水穀寒氣를 上下로 交濟하는 生理機轉을 이루고 있다.
 4. 『甲午本』 『臟腑論』을 근거로 한 少陰人의 水穀熱氣와 水穀寒氣의 횡적인 순환구조와 『甲午本』 『少陰人病證論』을 근거로 한 陽煖之氣의 前後上下의 순환을 圖式하여 偏小之臟과 陽煖之氣라는 保命之主 중심의 病理觀을 알 수 있었다.
 5. 『甲午本』과 『辛丑本』의 少陰人病證論을 비교고찰하여 辛丑本을 근거로 한 少陰人 生理機轉을 圖式하여 『甲午本』에 表裏病은 外感內觸으로 구분하였던 病理觀이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寒熱病證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偏小之臟 외에도 偏大之臟을 고려한 病理觀을 알 수 있었다.
 6. 少陰人의 病證論은 表病人 鬱狂證, 亡陽證, 裏病人 太陰病, 少陰病의 病理機轉을 圖式함으로써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輕重緩急과 順逆에 초점이 맞춰진 病理觀임을 알 수 있었다.

V. 參考文獻

1. 조항성. 性情과 表裏證과의 관계.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55-57.
2.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 (1):81-87.
3. Lee SK, Song IB. The study about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of Sasangin on the ‘Dongyi Suse Bow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9;11(2):1-26.(Korean)
4. Kwak CK, Sohn EH, Lee EJ, Koh BH, Song IB. The Study about the concept of exterior disease and interior disease of Sasangin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 16(1):1-11.(Korean)
5. Ko WS, Lee SK, Lee EJ, Koh BH, Song IB. Study for the mechanism of exterior, interior disease by the nature and emo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2):44-51.(Korean)
6. Lee EJ, Song IB. A Study on parts of So-yin-In and So-yang-I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6;8(1):43-56.(Korean)
7. Lee JH, Lee SK, Koh BH, Song IB. A Study 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Dongyi Suse Bowon’ written in 1894.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1;13(2):49-61.(Korean)
8. Han KS, Park SS, The Research about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on The DongyiSuseBowon Gabob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2; 14(1) : 34-50.(Korean)
9. Han K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Sasang-Constitutional-Medicine’s Symptomatic-Pharmacology.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005.(Korean)
10. Han KS, Park SS. The Conception of YangQi and YinQi at the Discourse on the Soyangin and Soeumin Disease in ‘Dongyi Suse Bow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6;18(1):11-21.(Korean)
11. Lim JN, Lee EJ, Koh BH, Song IB. Comparison with ‘Gu-Bon’ and ‘In-Bon’ on Symptom of Soern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3;13(2) : 62-73.(Korean)
12. 李濟馬. 東武遺稿.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5.
1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5.
1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5.
1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5.